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돈 카를로 출연 당시 김지운.

# 젊은 거장들 온다

**광주시향 내일**

##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협연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예술인들을 초청, 무대를 꾸민다.

한국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광주 출신으로 독일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중인 테너 김지운이 주인공이다.

광주시향은 12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협연무대를 마련했다. '러시아 음악기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신씨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들려준다.

2007년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5위 입상하며 이름을 알린 신씨는 2008년 프랑스 롱 티보 콩쿠르에서 1위, 오케스트라상 등 4관왕을 차지했으며 2012년에는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3위 입상했다.

이현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 3악장으로 구성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6번' 등 러시아 작곡가의 우수와 낭만이 깃든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415-5103.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규)은 독일에서 활동중인 테너 김지운을 초청했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시립합창단원으로도 활동했던 김씨는 독일 슈만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아욱스부르크오페라극장 전속 테너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가 출연했던 오페라 면면은 화려하다. 도니제티의 '돈카를로'에서 돈 카를로를 맡았으며 '카르멘'의 돈 호세, '투란도트'의 칼라프, '나비부인'의 핑커톤, '라보엠'의 루돌프, '아이다'의 라다메스, '일 트로바토레'의 만토바 공작 등 수편의 작품에서 주역으로 출연했다.

또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 스페인 마요르카 프린치팔 데 팔마 오페라극장, 폴란드 나 짬쿠 오페라극장 객원가수로도 활동했으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브란덴부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시립합창단 18일**

## 獨 활동 광주 출신 김지운 초청

이번 공연에서는 민요 '거문고 뱃노래', 이탈리아 민요 '넌 왜 울지 않고', 프란츠 레하르트의 오페라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들려준다.

또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중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날 수 있다면', 마스네의 오페라 '르 시드' 중 '전지전능하신 주여, 재판관이시여, 아버지시여'를 선사한다.

그밖에 이번 공연에는 2000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뉴콰이어합창단도 특별출연한다. 뉴콰이어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The Glory of the Father''The Ground'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등을 들려주며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삶의 약속'을 들려준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415-52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해금으로 듣는 왈츠·판소리 오페라

### 해화 퓨전국악실내악단, 13일 '아라리요'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으로 해화 퓨전국악실내악단(대표 송선명)의 'Arari謠(아라리요)-Aria&民謠'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황진이의 시를 해금 선율로 편곡한 '상사몽'과 왈츠 리듬에 소금·대금·해금 연주를 편곡한 드라마 황진이 OST '꽃날'을 선보인다.

또 판소리를 모티브로 한 오페라 아리아 형식의 창작 협주곡 '쑥대머리' '사랑가' 등을 연주한다.

이 밖에도 해금의 섬세한 감정표현과 박진감 넘치는 타악 연주가 돋보이는 해금협주곡 '추상'을 들려준다.

한편 해화 퓨전국악실내악단은 한국전통음악의 단아한 선율과 클래식의 풍부한 화성을 접목해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이는 단체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고흥 혼맞이굿' 무형문화재 지정예고

전남도는 10일 "'고흥 혼맞이굿'을 전남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예고 하고, 진도 북놀이와 진도 북춤, 고흥 월포농악은 보유자 인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흥 혼맞이굿은 망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씻김굿으로, 남도 특유 무속 전통을 잘 전승하고 있다. 김명례(여·73) 보유자는 세습 무계에서 태어나 무계 출신 남편을 만나 가업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고흥 혼맞이굿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진도 북놀이(전남도무형문화재 제18호·1987년 지정)는 양손에 북채를 쥐고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는 북장단과 함께 뛰어난 춤사위를 가지고 있다. 새로 인정 예고한 이희춘(55) 보유자는 박관용류 북놀이를 이수하고 전수교육 조교로 활동해왔다.

진도만가(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1987년 지정)는 전문화된 상여꾼들이 상여를 매고 가면서 부르는 상여소리로 오주창·김기선 2명의 보유자로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흥 월포농악(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1994년 지정)은 금산면 월포마을에서 연행되는 도서해안굿의 일종으로 문굿이 특징이다. 진삼화(72) 보유자는 전수교육 조교로서 오랫동안 종쇠를 잡아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빛소리오페라단, 예술여행 학교 콘서트

### 23일 화순동면중

빛소리오페라단(단장 최덕식)이 4일 충남 공주 탄천중학교를 시작으로 '신나는 예술여행-2015 사랑·희망·나눔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들은 미남이다', '섬집아기', '경복궁타령'과 '엿타령',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들려준다.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 '겨울왕국' OST 'Let It Go ', 뮤지컬 '라이온 킹 중 '사자가 오늘 밤 잠을 잔다네','인어공주' 중 '저 바다 밑에'이태리 칸초네 '오 솔레미오'(오 나의 태양)와 '푸니쿨리 푸니쿨라', 지킬 앤 하이드 '지금 이 순간'과 우정과 사랑과 미래를 위해서 '우정의 노래'를 준비했다.

출연진은 총감독 최덕식 교수(광주대 문화예술대학장, 빛소리오페라단 단장), 해설 및 소프라노 박미애(광주대 교수), 테너 이원용·장호영, 바리톤 김지욱·김대수, 피아노 천현주씨 등이다.

이번 음악회는 10일 경북 청송중고등학교를 거쳐 경남 고성동중학교(12일), 정읍 서영여고(17일), 화순동면중(23일), 군산동고등학교(24일)로 이어진다.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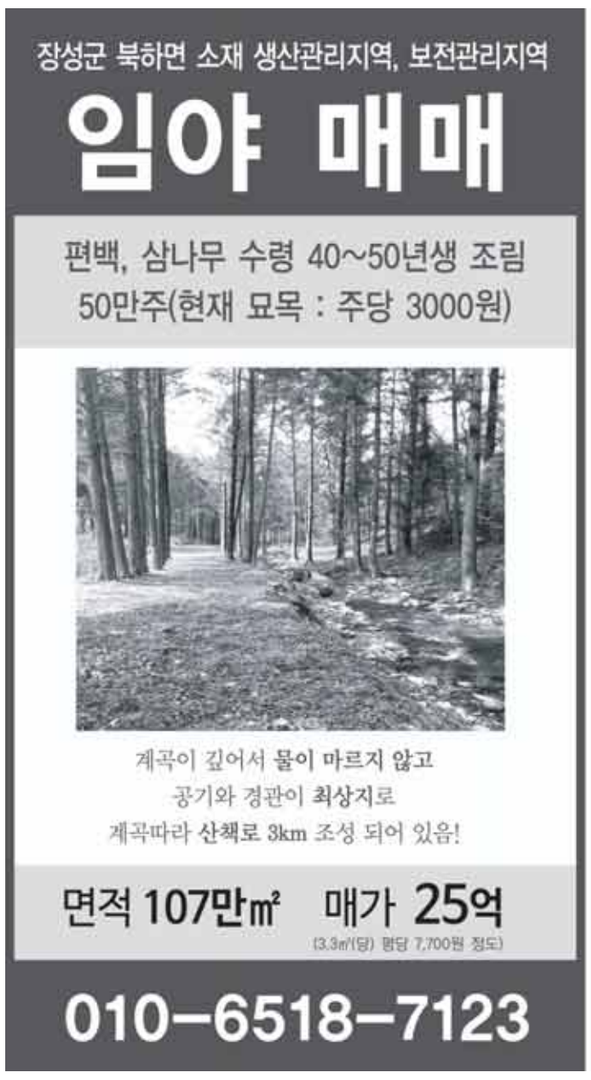
# 담양대나무축제 시화전 작품 시집으로 엮어

### 담양문인협 '햇살 연못' 펴내

지난 5월 담양대나무축제 기간에 전시되었던 시화전 작품들이 한 권의 시집으로 묶여져 눈길을 끈다.

담양문인협회가 최근 회원들의 작품집을 수록한 '햇살 연못'(에세이스트사)을 펴냈다. 시집에는 대나무축제 기간에 열렸던 깃발 시화전 출품작들이 담겨 있다. 깃발시화전은 담양문인협회 회원과 출향문인, 초대 작가들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어 담양 시문학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시집 제목 '햇살연못'은 담양(潭陽)의 한자를 풀이한 말로 고장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오롯이 드러낸다. 특히 축제 현장의 시화전을 바탕으로 시집을 발간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박성애 담양문인협회장은 "시화전과 연계한 시집 발간이 담양의 독특한 문화를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세계대나무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역 문인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